

KIT, 신약 · 화학물질 개발 “활발”

바이오신약 개발 · 지원에 고난이도 독성평가 ... 지경부 장관상 수상

독성 · 안전성평가 정부출연연구소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혁신정책홍보부 이현주 부장(좌)과 안전성 시험부 문경식 선임연구원(우)이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출연연 유공자 및 산업기술 R&D 우수관리자 포상 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IT는 2007년 기관평가 이후 계속되던 <미흡> 등급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우수에 가까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현주 부장은 영장류를 이용한 국내 바이오신약 및 개발 · 지원 노력 등을 통해 KIT의 연구 수탁고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경식 선임연구원은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고난이도 독성평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 및 화학기업의 신물질 개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해당 독성시험의 해외 의존도를 경감시켜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전성평가연구소(Korea Institute of Toxicology)는 의약이나 농약,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화학물질 등과 생물산업 관련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수탁시험료가 2002년 20억원에서 2007년 170억원으로 8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2005년부터는 대전연구소에 이어 정읍분소도 설립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12/29>